

제주지역 테마박물관의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and the Visitor Circulation of the Theme Museum in Jeju

박철민* 홍지호**
Park, Chul-Min Hong, Ji-Ho

Abstract

There are many ways to know the social and cultural level of each country. Among them, a theme museum are not only the best place to understand the history, the life style and the culture level. This thesis has the purpose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 through analyzing the space composition and the visitor circulation of the theme museum and understanding the relativity of them so that the new theme museums can be designed in the right direction. So I chose the independence museum that opened with in recent 10 years, finally middle & small size's theme museum were selected.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are as follow. Firstly, according to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sition with the ratio of each part's area, space composition of each museum is mainly for the exhibition part, but rarely for the education part. Secondly, theme museums in Jeju have the limit of diversity of circulation method because they have not the free circulation method.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sition is divided into basic type, center-hall enter type, around the center-hall type and guidance type. Fourthl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composition and circulation method of traffic line, it's realized that selective cir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basic type and center-hall enter type, and guidance cir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around the center-hall type and guidance type.

키워드 : 테마박물관, 제주도, 공간구성, 관람동선

Keywords : Theme Museum, Jeju Island, Space Composition, Visitor Circul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나 생활상, 문화수준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이며, 박물관 문화의 다양성과 대중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을 끌어들이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관람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바람직한 박물관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박물관에서 공간의 경험은 관람객이 전시된 내부를 보면서 느끼는 지식의 총체적 경험이고 동선체계는 박물관이 의도한 방향으로 관람객이 관람되어지는 경험을 결정하고 우회하는 순서를 의미한다. 또한 박물관의 공간구성은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동안 고정된 전시물과 전시공간을 통해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박물관 계획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관람동선체계는

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이러한 동선계획을 위한 공간구성은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박물관이 의도한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박물관계획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부평면의 계획적 사항들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구성의 유형과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형성되는 박물관의 동선체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공간계획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박물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운영주체에 따라 박물관의 규모와 프로그램 등이 달라지며 이는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체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공립 박물관은 지역 문화정보센터 성격의 종합박물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사립박물관은 이색적인 소재나 지역 특성이 강조된 테마박물관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테마박물관들이 건립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테마박물관이라는 용어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건립되

* 정희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는 크고 작은 전시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는 기념관,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는 문학관 및 기타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

제주도에는 국립박물관 1개, 공립박물관 4개, 사립박물관 16개, 총 21개의 박물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박물관 중에서 개관한지 10년 이내이고 건축물의 규모가 중·소규모²⁾이며, 기존 시설 내에 일정한 공간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의 테마박물관 10개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방법은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테마박물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특징과 박물관의 면적, 관람동선, 내부평면의 계획적 사항들을 조사하고 동선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별 전시상황을 조사하였다.

2. 박물관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의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4장과 5장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의 분석을 위한 틀이 되도록 하였다.

2.1 박물관의 공간구성

박물관의 공간구성은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박물관의 기능별 공간구성은 크게 중심공간과 주변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공간이란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에서 지적, 미적, 교육적 체험을 제공하는 영역과 관람객과 관람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교환의 영역을 말하며, 공공부와 전시부문에 이에 속한다. 주변공간이란 중심공간의 기능을 지원하는 영역이며, 교육부, 수장부, 사무부문에 이에 속한다.³⁾

표 1. 박물관의 기능별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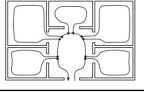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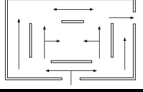
공간구성		공간 기능
중심 공간	공공 부문	박물관 내의 전시지원시설과 서비스 영역을 말한다. 주로 주출입구에서 연계된 중앙 홀 등 중심공간에 집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영역이다.
	전시 부문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뉘며 관련분야의 설명, 탐구, 참여 등에 의하여 학습하는 박물관의 기초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 공간	교육 부문	지역사회의 지적 충격을 위한 학교교육,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지니며 대중과의 연결을 통해 사회교육에 공헌한다.
	수장 부문	수장품을 유지, 관리하는 공간으로 다른 기능의 공간들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며 다른 기능의 공간과 결합이 불가능하다. 수장고는 특별한 보안과 환경조절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무 부문	일반 사무관리와 건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시설 내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 1) 김진영, 테마전시관이 지역사회의 관광수요 증대에 미치는 인식도 분석,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2007. 8, p.8
- 2) 박물관 규모는 6,000㎡ 이상을 대규모, 2,000-6,000㎡를 중규모, 2,000㎡ 이하를 소규모로 분류할 수 있다. (안영배 외 4명, 건축계획론, 기문당, 2000, p.664 참고)
- 3) '박물관 동선공간의 구성유형과 의미에 관한 연구(선우영진,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11-13)'에서는 영역별공간구성을 수장, 전시,

2.2 박물관의 관람동선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관람자에게 있어 전시를 경험하게 해주는 체험의 장소이다. 박물관이라는 복합체 안에서 전시물, 관람객 그리고 공간 사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동선체계에 대해 다양하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 박물관 동선의 특징이다.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통하여 움직이는 동안 고정된 전시물과 전시공간을 통해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언제나 적절한 관람을 가능하게 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때 전시내용의 방식이나 공간구성, 전시방법, 순환방식이 결정되고, 그것은 관람동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람객들의 동선순환방식은 관람의 형태에 따라 유도동선과 선택순환동선, 그리고 자율동선으로 구분된다.⁴⁾

표 2. 박물관의 동선순환방식

유형	유형별 특징	개념도
유도동선	박물관에서 제시한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 형식으로 관람패턴이 한정되어 있다.	
선택순환동선	중심공간에서 전시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자유로운 관람패턴이 형성된다.	
자율동선	단일 지붕아래 공간의 가변성을 가진 유형으로 다양한 관람패턴이 형성된다.	

유도동선은 박물관에서 제시한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 형식으로 연속적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시실에서 일정한 분류에 속한 전시물들을 차례로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다. 이는 경로선택이 쉬우며,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칫 심리적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선택순환동선은 가운데 중심공간이 존재하고 그 곳에서 관람객이 전시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보통 두 개 이상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람객은 특정한 동선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선상의 자유로움 때문에 관람객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유도동선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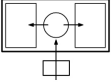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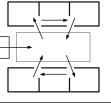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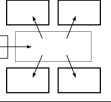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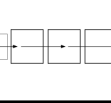
자율동선은 중심성이 없이 전시공간 전체가 오픈된 자유로운 평면에서 볼 수 있는 동선으로 어떤 전시기획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물의 분류나 질서를 찾기 어려우며, 다양한 관람패턴과 경험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 현재 제주도 테마박물관에는 이 동선순환방식이 사용되

연구, 교육, 운영, 관리공간으로 나누고 있다.

- 4) '제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에 관한 연구(이성훈,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제 16권 5호 통권 64호, 2007. 10. p.75)'에서는 동선구체계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을 강제순환방식, 선택순환방식, 절충형으로 나누고 있다.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박물관의 평면구성유형

유형	유형별 특징	개념도
기본형	로톤다가 중심이 되고 중정이 있는 좌우대칭의 디자인이다.	
중앙홀 순회형	대공간이 중심공간을 이루고 그 주위에 개별전시공간들이 둘러싼 개념이다. 대공간은 주로 동선상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중앙홀 출입형	몇 개의 전시실들이 분산되고 중앙에 홀이 배치되는 형태이다. 전시실의 공간적 경험은 관람객이 스스로 선택하여 형성된다.	
유도 관람형	각 전시실이 닫혀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형태이다. 각각의 전시물들을 차례로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선순환방식은 공간의 구성이나 각 전시실의 관계, 전시물과 직접적인 작용을 하며 평면구성유형과 연관성을 가진다. 다음 표는 박물관의 평면구성유형이다. 평면구성유형은 기본형, 중앙홀 순회형, 중앙홀 출입형, 유도 관람형으로 분류된다.⁵⁾

기본형은 고전적 디자인 영향을 받은 형식으로 가운데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전시실이 대칭으로 배치된 형식이다. 중심공간에는 대부분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수평·수직 동선이 집적되어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앙홀 순회형은 중심공간을 가운데 두고 전시공간이 연속적으로 둘러싼 형식으로 중심공간은 동선상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앙홀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중심공간에 사람 출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홀 출입형은 중심공간에서 관람객이 스스로 전시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중심공간은 동선분배의 기능을 하며 각 전시실의 전시정보 제공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전시실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유도 관람형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을 따라 관람객이 관람하는 형식으로, 입구와 출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전시공간들은 전체적으로 집합적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각 부분들은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유사한 관람순로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공간구성에 따라 전시방식과 관람동선은 영향을 받는다. 내부 평면의 계획적 사항들에 따라 공간구성은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시방식과 관람동선이 영향을 받게 된다. 평면구성유형은 박물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동선순환방식은 한정되어 있다.

5) 임재진·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예측(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7호, 2007. 7 p.53

평면구성유형에 따라 동선순환방식이 다르며, 동선순환방식이 달라지면 평면구성유형도 바뀌게 된다. 즉, 동선순환방식과 평면구성유형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

3. 조사대상 박물관의 공간구성 분석

3.1 조사대상 박물관의 건축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0개의 테마박물관의 개요와 현황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대상박물관의 건축현황

명칭	운영주체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규모	연간 관람객수	규모	위치
프시케월드	사립	33,058	5,911.6	중규모	19만명	지하1층, 지상2층	제주시 애월읍
해녀 박물관	사립	86,556	4,002	중규모	16만명	지상4층	제주시 구좌읍
감골 박물관	공립	148,403	4,786	중규모	10만명	지하1층, 지상2층	서귀포시 신효동
오설록 박물관	사립	8,100	1,564.2	소규모	21만명	지하1층, 지상3층	서귀포시 안덕면
테디베어 박물관	사립	13,555	4,030.6	중규모	19만명	지하2층, 지상1층	서귀포시 색달동
신영영화 박물관	사립	82,592	2,644.6	중규모	18만명	지하1층, 지상2층	서귀포시 표선면
소리섬 박물관	사립	25,613	4,152	중규모	10만명	지하1층, 지상3층	서귀포시 색달동
아프리카 박물관	사립	8,251	3,741.8	중규모	18만명	지하1층, 지상3층	서귀포시 색달동
건강과 성 박물관	사립	25,564	4,069.9	중규모	17만명	지하1층, 지상2층	서귀포시 안덕면
초콜릿 박물관	사립	4,958.7	2,644.6	중규모	6만명	지하1층, 지상2층	서귀포시 대정읍

(1) 제주시권

제주시에는 애월읍에 프시케월드와 구좌읍에 해녀박물관이 있다. 프시케월드는 나비와 곤충의 역사로부터 생식, 생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람거리와 정보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애완동물 및 곤충, 나비, 누에의 알 등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프시케월드는 사립박물관인 반면에, 해녀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으로서 제주해녀들의 생존과 삶, 자존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그들의 생활풍습, 무속신앙, 세시풍속, 해녀공동체 뿐만 아니라 제주민의 역사, 여성, 생업, 경제, 해양, 신앙 등 해녀를 주제로 하여 제주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곳이다.

(2) 서귀포시권

서귀포시에는 중문단지 내에 아프리카 박물관, 테디베어 박물관, 소리섬박물관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 감골박물관, 오설록 녹차박물관, 신영영화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초콜릿박물관이 있다.

감골박물관은 제주특산물인 감귤을 테마로 감귤에 대

하여 한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 건물 옆의 유리온실에서는 세계감귤원과 아열대식물원이 가꾸어져 있어서 세계의 각종 감귤류와 아열대지방의 식물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오설록 녹차박물관은 녹차와 한국 전통차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과 녹차와 관련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다목적홀을 갖춘 곳이며, 테디베어 박물관은 과거 100년간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테디베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중앙의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좌·우로 전시동과 카페테리아 및 관리동 매스가 배치되었다.

국내 최초의 영화박물관으로서 영상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영 영화박물관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을 직접 연주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소리섬박물관은 한국의 소리와 악기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의 색다른 악기와 소리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아프리카 미술품을 상설 전시하고 국내외 동시대 작가들의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현대작품들도 기획 전시하고 있으며, 지하에 아프리카 문화와 풍습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민속공연장이 있다.

성을 테마로 총 6개의 전시공간이 있는 건강과 성 박물관은 각 전시관별로 특색있는 주제와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콜릿의 역사와 지구상의 모든 초콜릿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한 초콜릿박물관의 내부에는 초콜릿으로 만든 인형이 전시된 전시관과 직접 초콜릿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다.

3.2 기능별 공간구성

표 5는 각 박물관별로 소요실의 공간구성과 소요실 유

·무, 층별 위치를 나타낸 표이며, 부분별로 소요실을 분류하여 세분화된 박물관 공간구성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각 조사대상박물관에 공통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소요실의 종류는 공공부문의 매표소, 전시부문의 상설전시실과 전시준비실, 수장부문의 수장고, 사무부문의 사무실 등이 있다.

전시부문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박물관들의 경우 상설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귤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등 3곳에서만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3개의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전시는 상설전시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나 주제를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조사대상박물관은 테마박물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각 테마에 맞는 상설전시 위주로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고, 기획전시를 위한 전시공간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매표소, 중앙홀, shop, 카페테리아 등의 단위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오설록 녹차박물관은 기업이 자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매표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테디베어 박물관은 입구가 있는 북쪽에서부터 중문해안으로 낮아지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매표소가 1층에 있고 전시실과 다른 시설들이 지하에 위치하여 있어 수직동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콜릿박물관은 과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을 개관하였기 때문에 테마에 맞는 공간구성을 하지 못하고 중앙홀이 없는 형태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의 중앙홀 위치에 갤러리를 설치하였다. 신영영화박물관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전시실이 배열되어 있는 내부공간이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

표 5. 조사대상박물관의 부문별 공간구성

		박물관명									
		프시케 월드	감귤 박물관	오설록 녹차박물관	테디베어 박물관	신영영화 박물관	소리섬 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초콜릿 박물관	해너 박물관
공공부문	매표소	1F	1F	-	1F	1F	1F	1F	1F	1F	2F
	중앙홀	1F	1F	1F	B2	-	1F	1F	1F	-	1F
	shop	1F	1F	1F	B2	2F	-	3F	-	1F	2F
	카페테리아	2F	-	1F	B2	-	-	3F	2F	1F	-
전시부문	상설전시실	1,2F	1F	1F	B1,2	1,2F	1,2,3F	1,2F	1F	1F	2,3F
	기획전시실	-	2F	-	-	-	-	1F	1F	-	-
	전시준비실	1,2F	1,2F	1F	B1	1F	3F	1,2F	1F	-	1F
교육부문	영상실	-	1F	1F	B2	B1	-	2F	1F	1F	2F
	세미나실	-	-	-	-	-	-	1F	1F	-	4F
수장부문	수장고	-	1F	-	B1	1F	-	3F	1F	-	1F
	작업실	-	1F	-	B1	-	-	3F	1F	1F	1F
	창고	1F	-	B1	-	1F	3F	-	-	-	-
사무부문	관장실	1F	1F	-	-	-	-	2F	1F	-	-
	사무실	1F	1F	1F	B1	1F	3F	1F	1F	2F	1F
	회의실	-	-	-	-	-	-	-	-	-	1F
	자료실	-	1F	-	B2	-	-	-	-	2F	-
기타	직원숙소	-	-	-	B2	-	-	-	-	2F	-

에서 제시한 동선을 따라 관람객이 관람하는 형식으로 전시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부문은 영상실과 세미나실이 이에 해당되는데, 해녀박물관과 아프리카 박물관, 그리고 건강과 성 박물관은 세미나실이 존재하여 테마에 맞는 문화체험교실이나 강좌·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해녀박물관은 4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이 전망대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프시케월드와 소리섬박물관의 경우 영상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교육부문 공간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장부문은 수장고, 작업실, 창고가 이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1층에 수장부문을 두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 박물관과 소리섬 박물관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1, 2층의 내부공간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전시부문 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무부문은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이 이에 해당되며, 회의실은 해녀박물관만이 갖추고 있다. 다른 조사대상 박물관과는 달리 소리섬 박물관만이 사무실을 3층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수장부분과 마찬가지로 1, 2층의 내부공간에는 전시부문 위주로 소요실 배치를 했기 때문이다.

3.3 부문별 면적비율

각 기능별 공간구성의 면적비율은 각 박물관의 공간구성 및 전시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며, 이를 통해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 특성화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조사대상 박물관의 평균적인 부문공간별 면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4.5%, 전시부문은 42.1%, 교육부문은 7.4%, 수장부문은 7.9%, 사무부문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공간인 공공부문과 전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6.6%였으며, 주변공간인 교육부문·수장부문·사무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3%로 낮게 나타났다. 각 부문별 면적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은 테디베어 박물관이 3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신영영화 박물관이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테디베어 박물관의 경우 중앙홀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신영영화박물관은 중앙홀이 없이 전시공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테디베어 박물관처럼 중앙홀이 공공부문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내부공간을 구성할 경우 관람객 움직임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되어 박물관의 전체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시부문은 공공부문과 함께 테마박물관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신축되는 테마박물관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시부문의 면적비율은 감귤박물관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초콜릿박물관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귤박물관의 경우 본 건축물 내의 전시실 이외에 본 건물에 부착된 유리온실이 세계에 있는 각종 감귤나무들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을 상설전시하고 있음에 따라 전시부문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초콜릿박물관은 리모델링 건축물로서의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1층만 전시부문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시실의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신영 영화박물관은 영화라는 테마에 따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어서 감귤박물관 다음으로 전시부문에 많은 면적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문은 건강과 성 박물관이 12.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프시케월드와 소리섬박물관은 교육부문 관련 시설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다. 건강과 성 박물관의 경우 전시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에 대한 강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면적의 영상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육부문에 공간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프시케월드와 소리섬박물관 그리고 소규모의 영상실만을 가지고 있는 감귤박물관과 테디베어 박물관은 최대한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전시공간에만 많은 면적을 배분하고 있고, 각종 강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장부문은 테디베어 박물관의 경우 10.9%의 충분한

표 6. 조사대상박물관의 각 부문별 면적비율

구 분	공공부문					공 간 구 성 비 율 평 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프시케월드	29.2	47.2	0	7.3	9.8	
감귤박물관	16.4	55.6	4.9	9.1	8.2	
오설록 녹차박물관	30.3	38.6	9.2	6.5	9.7	
테디베어 박물관	36.4	32.4	5.1	10.9	7.6	
신영 영화박물관	12.7	54.5	11.1	6.3	5.6	
소리섬박물관	19.4	48.2	0	5.8	12.2	
아프리카 박물관	22.7	38.2	10.5	9.6	12.4	
건강과 성 박물관	27.5	41.0	12.2	8.4	5.7	
초콜릿박물관	24.5	31.8	10.2	6.2	15.5	
해녀박물관	26.1	32.7	10.3	9.3	13.1	
평 균	24.5	42.1	7.4	7.9	10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조사대상 박물관은 모두 1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상설전시를 위주로 하는 소리섬 박물관 등 7개의 박물관은 전시물품의 수장에 무리가 없으나, 기획전시까지 계획되어있는 감굴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그리고 건강과 성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물품을 수장하기에는 공간적 한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부문은 초콜릿박물관이 15.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신영 영화박물관의 비율이 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콜릿박물관은 2층 전체를 사무영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신영 영화박물관은 사무부문의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전시부문과 교육부문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대상 박물관의 관람동선 분석

건축계획시 동선에 관한 계획이 소요공간에서 최소한의 동선거리가 최적화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박물관 건축에서의 관람객 동선은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자발적인 우회로서의 특징을 지니므로 경제적인 동선보다는 그 반대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관람동선적 특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관람동선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람동선 추적조사는 각 조사대상 박물관별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관람객의 이동형상과 특성 그리고 평면구성에 따른 관람동선 유형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각 박물관 개장시간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스케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별 관람객 중 성인 2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박물관의 내부공간 중에서 관람동선이 평면구성과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나타나는 shop과 카페테리아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2장의 박물관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의 이론적 고찰에서 동선순환방식을 선택순환동선과 유도동선 그리고 자율동선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사대상 박물관에서는 자율동선에 속하는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선택순환동선과 유도동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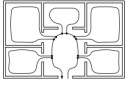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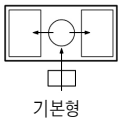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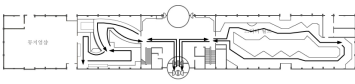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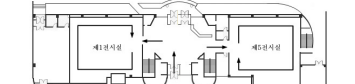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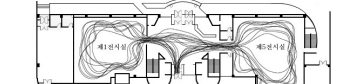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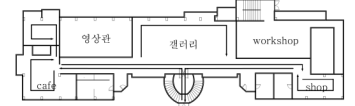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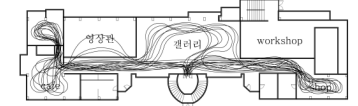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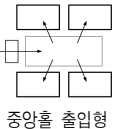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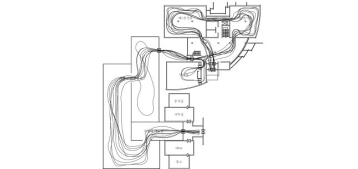
4.1 선택순환동선

선택순환동선방식은 평면구성유형 중 기본형과 중앙홀 출입형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형과 중앙홀 출입형은 중심공간에서 관람객의 경험에 의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람객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순로를 관람객에게 제시하는 동선으로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형

기본형에는 프시케월드, 소리섬박물관, 초콜릿박물관이 해당되며, 프시케월드는 1, 2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으로 중앙에 중심공간이 있고 좌·우로 전시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심공간에서는 관람객의 선택에 의해 전시관을 둘러 볼 수 있고 전시실은 개별적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전시되어 있다. 소리섬박물관은 중앙홀이 입구홀 역할을 하는 동시에 3층 높이의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박물관의 전시내용과 동선순환방식을 포함한 전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좌·우의 각 전시실에서는 주제별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전시실을 관람객이 선택하여 관람한다. 초콜릿박물관은 중앙에 갤러리를 중심으로

표 7. 조사대상박물관의 선택순환동선

동선순환방식	평면구성유형	조사대상박물관	중심홀	조사대상박물관 유도동선	조사대상박물관 관람동선체계
 선택순환동선	 기본형	프시케월드			
		소리섬박물관			
		초콜릿박물관	없음		
	 중앙홀 출입형	감굴박물관			

영상관, work shop, 그리고 cafe가 배치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은 갤러리를 먼저 둘러본 후 좌·우로 선택하여 내부를 관람한다.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은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양쪽 전시실로 나뉘는 선택적 동선이고, 관람동선체계는 중심공간에서 관람객이 좌·우의 전시실로 50%씩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형의 관람동선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양쪽 전시실에 선택적 동선이 적용되었다.

(2) 중앙홀 출입형

중앙홀 출입형에는 감귤박물관이 있으며 감귤박물관은 입구에서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에 홀이 있고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영상실, 유리온실, 2층에는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전시실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개별 전시공간으로 선택하여 나뉘는 동선이고, 관람동선체계는 중앙홀을 시작으로 관람을 시작하는 동선이 상설전시실은 55%, 영상실은 15%, 기획전시실은 30%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에 유리온실을 거쳐 외부로

나가는 동선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중앙홀 출입형은 중앙홀에서 관람객이 스스로 전시실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객들에게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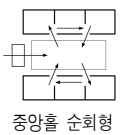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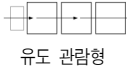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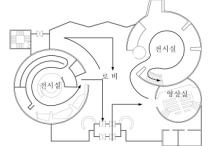
4.2 유도동선

유도동선방식은 평면구성유형 중 중앙홀 순회형과 유도관람형이 이에 포함된다. 중앙홀 순회형과 유도관람형은 박물관에서 제시한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는 방법으로 관람객마다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며,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홀 순회형

중앙홀 순회형은 중심공간을 가운데 두고 박물관의 제시순로대로 전시공간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오설록 녹차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테디베어 박물관이 있다. 오설록 녹차박물관은 가운데 중정이 있고 그 주위를 전시실이 감싸는 형식이다. 중정은 건물 내의 대부분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정적인 전시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여 계

표 8.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

동선순환방식	평면구성유형	조사대상박물관	중심홀	조사대상박물관 유도동선	조사대상박물관 관람동선체계
 중앙홀 순회형	 유도동선	오설록 녹차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테디베어 박물관			
 유도 관람형	 유도동선	신영 영화박물관	없음		
		건강과 성 박물관			
		해녀박물관			

절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중앙에 3층까지 열린 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주며, 중앙홀을 순회하며 각 층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영상실과 세미나실을 관람할 수 있다. 테디베어 박물관은 건물 중앙 입구인 아트리움 상단으로 입장을 하고, 지하 2층까지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전시실을 순환하며 내려갔다다 다시 올라오면서 관람하는 동선이다.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은 가운데 중앙홀이나 중정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관람을 유도하는 동선이며, 관람동선체계는 가운데 중앙홀이나 중정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순회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2) 유도관람형

유도관람형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전시공간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신영 영화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해너박물관이 있다. 신영 영화박물관은 1층으로 입장해서 지하를 둘러보고 2층으로 나가는 전체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공간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입구와 출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건강과 성 박물관은 중앙홀이 입구에 연결되어 있고, 전시실은 1층에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각 부분들이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2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위치하여 있다. 해너박물관은 제1전시실을 시작으로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을 통해 연속적인 공간을 따라 관람객 차례로 관람하고 입구로 다시 나온다.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은 각 실을 따라 연속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동선이고, 관람동선체계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도관람형의 관람동선은 연속적으로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이다.

이와 같이 관람동선의 경우 개인적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관람동선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사대상박물관의 유도동선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박물관들 중에서 개관한지 10년 이내이고 건축물의 규모가 중소규모이며 독립적인 형태의 테마박물관 10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내부평면의 계획적 사항들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구성의 유형과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형성되는 박물관의 동선체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성의 특징을 각 부분별 면적비율로 살펴본 결과, 각 박물관의 공간구성이 전시부문(42.1%) 위주로 되어 있었고 교육부문(7.4%)에 대한 고려가 가장 미약하였는데, 사립박물관이 대부분인 테마박물관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역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는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시공간의 구성은 테마박물관의 주제에 따라 대부분 상설전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시의 주제나 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동선은 순환방식에 따라 유도동선과 선택순환동선, 그리고 자율동선으로 구분되며, 분석결과 유도동선이 나타난 박물관은 6개, 선택순환동선이 나타난 박물관은 4개로 조사되었다. 자유로운 평면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율동선방식을 선택한 박물관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대상 테마박물관의 경우 관람동선순환방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관람동선의 특징은 평면구성유형상 기본형, 중앙홀 순회형, 중앙홀 출입형, 유도 관람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과 중앙홀 출입형은 중심공간에서 관람동선을 선택하여 관람객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이며, 중앙홀 순회형과 유도관람형은 박물관에서 유도한 동선으로 관람객이 관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경험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공간구성과 동선순환방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면구성유형 중 기본형과 중앙홀 출입형은 선택순환동선방식을 취하고, 중앙홀 순회형과 유도관람형은 유도동선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평면구성유형과 동선순환방식이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내부 평면의 계획적 사항들에 따라 평면구성유형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간구성과 동선순환방식이 상호 변형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추후 테마박물관 계획시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2. 안영배 외 4명, 건축계획론, 기문당, 2000
3. 강민정, 박물관 전시공간의 구성과 동선패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0. 4
4. 최준혁, 박물관 전시동선의 유형과 요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4호 통권186호, 2004. 4, p.p.85-94
5. 선우영진, 박물관 동선공간의 구성유형과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12
6. 조나영,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12
7. 장주형, 현대 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분석에 따른 공간구성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1호 통권 207호, 2006. 10, pp.11-20
8. 임채진·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예측(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7호 통권225호, 2007. 7, pp.51-60
9. 이성훈, 제 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5호 통권64호, 2007. 10, pp.71-80

(接受: 2008.05.10)